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04384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T.02)796-9800 F.02)749-6638

www.cgntv.net

CGNTV

MAGAZINE
Spring 2018_Vol.19



<나침반 플러스>

박지현, 박재연, 이지희, 김경아

목차

2018 CGNTV 방송 방향

Special

2 그리스도 안에서 더 멀리 더 가까이

신규 프로그램 < 나침반 플러스 >

Contents

4 출연자 인터뷰 - 방송인 이지희 / 가수 박지현
10 행복한 가정생활 꿀팁 - 박재연 대표

개국특집다큐멘터리

12 러브소나타 10년, 1퍼센트의 기적

모바일 콘텐츠 < 두근두근 마카롱 2018 >

16 에피소드 소개
17 출연자 인터뷰 - 배우 임재민

선교지의 아침

Mission

20 태국 송진호, 석영주 선교사

해외뉴스 / 국내뉴스

News

22 해외
24 국내

인터뷰

People

27 후원자 스토리
28 신입사원 - 추정현, 고 협
30 편성표
32 에필로그 -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중
33 후원안내



COVER STORY

2018년 새 봄, 봄기운 완연한 네 사람 박지현, 박재연, 이지희, 김경아(사진 왼쪽부터)가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토크 <나침반 플러스>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CGNTV Magazine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18년 4월 1일(통권 제 19호)

발행처 CGNTV(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59길 8 CGNTV

발행인 이재훈

대표 이용경

편집인 김경훈, 함태경

기획 CGNTV 브랜드 커뮤니케이션팀

진행·편집 정원이, 여대준, 김 란, 추정현

글 조인애

사진 여대준, 여준원

디자인·인쇄 페이지원(02-757-3111)

그리스도 안에서 더 멀리 더 가까이

개국 13주년을 맞아 CGNTV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눔과 회복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선교적, 성경적 콘텐츠를 통해 선교교육방송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시청자 맞춤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나눔과 회복

한국교회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간 역사 기행 프로그램 <한국순례기>(6월 첫 방송)와 소셜 플랫폼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KNOCK> 미니휴먼다큐가 TV를 통해 방송되며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또 동성애 관련 프로그램들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전한다. 오는 12월에는 3부작 옴니버스 드라마 <바라, 봄>(가제)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나눈다.



선교와 교육

건강하고 복음적인 국내외 목회자 9명의 말씀강해가 4월부터 새롭게 방송된다. 또 일본 선교를 주제로 한 개국특집다큐멘터리 <러브소나타 10년, 1퍼센트의 기적>을 통해 선교 방송으로서의 CGNTV 정체성을 강화한다. 신규 프로그램인 <나침반 플러스>가 '가정', '기독교 세계관', '차세대'를 주제로 각 10편씩 방영되며 지식과 더불어 신앙의 깊이와 재미를 선사한다.

시청자 맞춤

시청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청 시간대와 방송 플랫폼 등을 개편하여 시청자 맞춤 방송으로 나아간다. <맞춤특강 나침반>(월/화), <나침반 바이블>(수/목), <나침반 플러스>(금)를 CGNTV 프라임 시간대인 오전 8시 20분에 편성하고, 음악프로그램 <김영우의 스위트사운드즈>를 10분 내외로 재편집한 <미니콘서트 심>(Ver.2)도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청소년 큐티 프로그램 <새벽나라>는 청소년들의 시청 패턴에 맞춰 TV에서 웹과 모바일로 플랫폼을 옮겨 시청자들을 만난다.

나눔과 회복,
시청자들에게
더 가까이





방송인 이지희, 가수 박지현의 화면 밖 플러스 스토리

'가정'의 여러 문제들, 누군가에게 속 시원히 묻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가. '기독교 세계관' 혹은 '차세대'에 관해서는. 오는 4월 6일 첫 방송되는 CGNTV 신규 프로그램 <나침반 플러스>가 그 장을 마련했다.

첫 녹화는 실제 가정집 같은 아늑한 분위기의 스튜디오에서 지난 2월 진행됐다. 이지희, 박지현, 박재연, 김경아 4명의 출연자가 한자리에 모여, '사랑' 편 첫 주제 '스트레스'에 대해 힐링 토크 시간을 가졌다. 방송인 이지희가 진행을 맡았고, 다둥이 아빠인 가수 박지현이 유일한 남성 출연자로 눈길을 끌었다. <나침반 플러스>로 찾아온 반가운 두 사람을 만났다.



늘 지금이 특별한 <나침반 플러스> 진행자 이지희



plus1. 첫 녹화

“최근 가정 회복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우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섭외 연락이 왔어요. ‘뭐지?’ 싶으면서, 감사했어요.” <나침반 플러스>의 진행을 맡게 된 방송인 이지희는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번 프로그램이 어느 때보다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녀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정이기도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많은 가정에 회복을 선물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첫 녹화는 프로그램이 회당 30분임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 넘도록 진행됐다. 패널들의 이야기에 함께 웃고 호응해주는 그녀의 에너지가 적잖이 빛을 발했다. “첫 녹화였지만 모두 편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서 서로 공감하며 친해질 수 있었어요. 시청자분들도 ‘저 부분은 내 이야기구나’ 공감하며 웃고 즐기시면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진행자로서 그녀는 잘 들어주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몫이라고 여기고 있다. 잘 들어줄 때 진솔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1997년 MBC 미스 디제이 선발대회 대상으로 방송에 데뷔한 그녀는 MBC <섹션TV 연예통신> 등 다수의 TV,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통해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왔다. 오랜 시간 무수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끌어냈던 경험은 지금 그녀의 가장 큰 자산이자 사명이다.

plus2. 부르신 곳에서

2006년 <문단열의 바이블 편글리쉬>로 CGNTV와 인연을 맺은 이지희는 <TV빛과소금>, <독수리 5형제>,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약했다.

<TV빛과소금>은 그녀의 신앙이 한창 성장할 때,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소재를 통해 배운 것이 많았다. <독수리 5형제>는 막연히 선교사들의 삶이 궁금했을 때 그들의 실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를 통해 들은 탈북 형제, 자매들의 사연들도 하나하나 마음에 남았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저를 필요한 프로그램에 넣어주신 것 같아요.” 이지희는 <나침반 플러스>도 그 연장선처럼 느껴져 더욱 반가웠다.

plus3. 신앙과 가정

1997년 남편을 만나면서 신앙을 갖게 된 이지희는 가정이 첫 믿음의 터밭이었다. 배우 신애라와 함께 성경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맛봤다. 또 교회와 연예인 모임 등 여러 공동체를 통해 신앙이 성장했다. <나침반 플러스>에서 만난 가수 박지현, 개그우먼 김경아도 한 달에 한 번 있는 연예인 예배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사이다.

두 아이를 위해 기독교대학교를 선택한 그녀는 아이들에게도 그런 공동체를 가르쳐주고 싶었다. 또 마음껏 뛰어놀며 하나님 안에서 왜 공부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찾아가기를 바랐다.

그 이유로 큰 아이가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당시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하던 서너개의 방송을 모두 내려놓기도 했다. 1학년울 시작하는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일할 때 누구보다 행복했던 그녀로선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가족 모두가 성장할 수 있었던 특별한 시기였다. 그녀의 남편도 당시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 현재 전도사로 사역 중이다.

<나침반 플러스> 첫 회 ‘스트레스’ 편에서 그녀는 “간혹 사춘기인 첫째와 생기는 소통의 문제는 편지나 메모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며 소소한 자신의 경험담을 나눴다. 앞으로 재정, 역할, 관계, 기질, 성격 편 등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해진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저를
필요한 프로그램에
넣어주신 것 같아요.”
이지희는
<나침반 플러스>도
그 연장선처럼
느껴져 더욱
반가웠다.

늘 지금이 감사한 가수 박지현

plus1. 남성의 역할

“가정 내, 남편 혹은 아빠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룹 V.O.S의 멤버, 가수 박지현이 방송인 이지희를 비롯한 네 명의 여성들과 <나침반 플러스> 첫 시즌 패널로 초대됐다. 화기애애한 여성들 사이의 남성 발라드 가수, 언뜻 의문이 드는 조합이지만 첫 녹화에서 박지현은 이내 우려를 잠재우며 기탄없이 이야기꽃을 피웠다. 여섯 아이 아빠의 내공은 생각보다 넓고 깊었다. 올해 초 그는 여섯째 답이를 만났다. 그는 “출산 당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내 울었다”고 고백했다. 아이들을 통해 누렸던 많은 것들이 무엇보다 감사하고 귀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가 <나침반 플러스>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한 경험과 가치들이었다. 특히 남편의 역할에 관해서는 더욱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plus2. 함께

“아내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 남편의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이다. 그는 매일 아내와 꾸준히 한 시간씩 식탁 교제를 나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지방 공연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와도 꼭 일어나 함께 시간을 보낸다. 대화하다가 밤을 지새운



것도 부지기수다. 수시로 나누는 통화까지 합치면 부부의 대화는 매일 평균 네 다섯 시간은 된다.

자녀 교육을 홈스쿨링으로 결정한 것도 부부가 나누는 대화로 결정됐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교육을 고민하면서 홈스쿨링을 시작했다. 아이들 인생에 함께했던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원동력이 되듯 가정의 권위자인 아버지의 사랑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인다고 믿는다.

아이들은 저녁 8시면 모두 잠자리에 든다. 잘 잠드는 습관도 평생의 에너지가 된다는 박지현의 교육 철학 때문이다. 덕분에 오전 6시경 아이들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고, 함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이 여유로워 아이들이 아침 식사나 잠자리 정돈하기, 씻기 등도 스스로 잘한다.

홈스쿨링 학습은 공교육 과정을 집으로 옮겨왔을 뿐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박지현 부부의 생각이다. 과목별 진도에 맞춰 방문 학습, 인터넷 강의 등 맞춤형 교육을 하고, 부모는 시간표와 숙제 등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plus3. 아들 셋, 딸 셋

박지현의 여섯 자녀 이름에는 하나님의 빛을, 강건하게, 의롭게 찬양하라는 뜻이 담겼다. 첫째 열세 살 박빛찬부터 열 살 강찬, 여덟 살 의찬, 다섯 살 향, 세 살 솔, 막내 한 살 담이까지. 이름에 아빠, 엄마의 소망이 배어있다.

박지현 부부는 7년 전 처음 하나님을 만났다. 그가 한창 가수 활동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당시 “교회에 가시면 좋겠다”는 한 제자의 말을 듣고 처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아내도 동행했다. “멀리 교회가 보이는 길에서부터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디를 보며 살아야 할지 이제야 알겠다고.” 현재 그의 아내는 1년에 성경을 4독 할 만큼 말씀 가운데 지내고 있다.

최근 그들은 종편채널 육아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다동이 가정, 흔치 않은 교육 방법 등이 눈길을 끌며 시작된 일이지만, 진정성 있는 부부의 모습은 전파를 통해 따뜻한 웃음과 묵직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오롯이 더 깊은 그의 속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나침반 플러스>,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듯
 가정의 권위자인
 아버지의 사랑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인다”

행복한 가정생활 꿀팁

Q1. 육아 및 직장생활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스트레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고 싶을 때 생깁니다. 말을 듣지 않는 아이, 내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팀원, 노력해도 알아주지 않는 상사 등 통제하기 어려운 대상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고통스럽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상대를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스트레스의 강도만 높아지지요. 이럴 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을 때, 역설적이게도 고통이 평화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욕구를 채워줄 유일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길입니다.

Q2. ‘가장’, ‘아빠’, ‘엄마’, ‘며느리’ 등 역할이 주는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극복해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과 성취의 욕구가 자칫 경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이루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반면 자신의 역할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관계에 힘씁니다. 역할을 잘한다는 것은 상대적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엄마 정말 최고야”라고 하면 엄마는 스스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잘 해낼 때 자신감이 생기고 이것이 성취와 효율성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합니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가급적 빨리 확실하게 거절합니다. 이것은 맡은 일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최선을 다한 후 결과는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결과를 맡기며 수용하는 모습은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Q3. 자녀의 친구 관계로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막 관계를 형성해가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부모가 어디까지 관여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를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문제는 아이와 대화만 잘 나눠도 많은 것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생인 아이가 친구와의 문제로 힘들어 한다면, 먼저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중간에 끊거나 가르치거나 지적하지 말고 침묵하며 때론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확인하면서 들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 다음,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와주길 바라는지 헤아려본 뒤, 엄마가 도와줄지 아니면 아이가 직접 해결해 볼지 상의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도움이 상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야 합니다. 아이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학년 이라면 엄마가 같이 중재해주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2학년 이후라면, 직접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비켜서서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4. 부모와 자녀, 부부 등 가족 간의 대화에서 서로 오해 없이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원치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말하는 우를 범합니다. “손 씻고 울까?”라는 말을, “더러워!” “지저분한 손으로 먹지 마” 등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번 말을 해도 가족들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봐야 하는데, 강요나 협박, 비난하는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 간일수록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강요 대신 요청하고 부탁해야 합니다. 또 서로가 바라는 것들은, 어느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닌 모두 만족할 만한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Q5. 온갖 미디어가 범람하는 시대인데요. 게임, SNS 등 미디어 중독이 낳은 정신적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요즘 아이들의 놀이문화가 놀이터에서 흙을 만지며 놀던 것에서 게임이나 PC를 이용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에는 중독성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보다는 기계 속에 정신이 매몰되는 부작용과 정신적인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 같이 마주 앉아 규칙을 정해보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규칙을 정할 때에는 그것을 만들길 바라는 사람과 지킬 사람 모두가 참여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규칙을 너무 오래 지키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일주일 동안 지내보자” 혹은 “한 달 해보고 규칙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실천에 도움을 줍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강요 대신 요청하고 부탁해야 합니다.



박재연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대표, <나침반 플러스> 출연 저서 <엄마의 말하기 연습> 외 다수



▶방송일시 : 2018년 4월 1일(주일) 오후 3시 20분 / 2018년 4월 3일(화요일) 오전 9시 30분(재방송)
▶내레이션 : 배우 최지우

10년을 이어온 하나님의 노래 '러브소나타 10년, 1퍼센트의 기적'

일본 구마모토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오는 2019년, 러브소나타를 개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구마모토는 지난 2016년 대지진이 발생한 지역이다. 일본교회에서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는 구마모토를 위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러브소나타'는 지난 2007년 일본선교를 위해 시작된 대규모 문화전도집회다. 한일 양국의 목회자, 문화·예술인,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며 지금까지 10년간 일본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왔다. 개국 13주년을 맞이한 CGNTV에서는 러브소나타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며 선교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제는 성장하여 선교의 동역자가 된 일본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1%의 기적'을 담는다.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크리스천 인구가 1%에도 못 미치는
선교 불모지에 용기 있는
첫 발을 내딛는 자리

러브소나타의 시작은 2006년 오사카 NHK홀에서 열린 일본 CGNTV의 개국 기념 콘서트였다. 크리스천 인구가 1%에도 못 미치는 선교 불모지에 용기 있는 첫 발을 내딛는 자리였다. 콘서트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뜻하는 '러브소나타'로,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겨울 연가> (일본 <겨울 소나타>로 방송)에서 착안한 것이다.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이번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을 맡은 배우 최지우도 이 무대에 함께했다.

러브소나타는 이듬해인 2007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키나와에서 홋카이도까지 한 해 동안 총 6번의 러브소나타가 일본 열도를 울렸다. 2010년 니가타를 마지막으로, 일본을 정말 사랑했던 하용조 목사가 소천하면서 러브소나타의 지속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새롭게 취임한 이재훈 담임목사가 일본을 향한 뜨거운 비전을 이어가면서 오늘날까지 러브소나타는 순항 중이다.

오키나와에는 러브소나타의 감격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다. 2007년 개최지이자 2013년 또 한 번 진행된 곳이기 때문이다. 시로이이예교회는 두 번의 러브소나타를 계기로 차세대의 부흥이 일어났다.

2014년 러브소나타가 열렸던 홋카이도의 작은 도시 오비히로는 대도시 위주로 열렸던 러브소나타가 작은 소도시에서도 열리는 계기가 됐다. 비록 작은 도시였지만, 우연히 참석했던 러브소나타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도 많았다.



함께한 사람들

테너 배재철은 수차례 러브소나타 무대에 오른 대표적인 출연자다. 그는 은혜로운 간증과 울림 있는 찬양으로 늘 복음을 나누며 감동을 전했다. 하지만 그의 무대만큼이나 무대 뒤에서도 값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의 친구이자 프로듀서, 일본인 와지마 상이 그를 따라 러브소나타에 참석하면서 하용조 목사의 책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일게 된 것이다. 현재 와지마 상은 예수를 모르는 일본인들에게 결신을 요청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007년 센다이 러브소나타를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된 강동 온누리교회와 야마가타남부교회의 만남은 매우 특별하다. 강동 온누리교회에서는 매년 야마가타남부교회로 아웃리치를 떠나 노방전도, 초청 집회, 성도의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하는 홈스테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야마가타남부교회를 섬기며 큰 힘이 되고 있다. 무려 10년의 세월을 변함없이 섬겨온 강동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은 이제 손님이 아닌 교회의 가족이 됐다.

강동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팀장을 맡고 있는 한동훈 형제는 신혼 여행을 야마가타남부교회로 갈 정도로 그 지역과 교회를 사랑했다. 작년 10월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하기까지 계속된 팀원들의 릴레이 합심 기도와 헌신에 오카 목사는 감사했다. 이 또한 10년간 계속된 하나님의 사랑 노래요, 러브소나타다.



▲와지마 토타로 상(테너 배재철 매니저)

▼오카 세츠야 목사(야마가타남부교회)와의 만남



일본선교, 꽃피는 그날을 기다리며

러브소나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본을 섬겼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현상이었다.

오카야마에서는 2016년 러브소나타 리더십 포럼 이후, 일본 리더십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세상을 밝게 하는 회의'라는 이름으로 모여 오카야마 전도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한국을 방문해 한국 CCF(Christian CEO Forum)와 교제를 나누는 등 복음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1월 동경 러브소나타의 후속 행사인 '가스펠나이트 넥스트'가 도쿄에서 열려 젊은이 1천 2백여 명이 참석해 126명이 교회 헌신을, 98명이 목회자의 삶을 결단했다. 헌신자 한 명이 귀한 일본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일본 교회에, 특별히 교회의 미래가 될 차세대에게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본선교에 왜 한국을 사용하실까. 분명한 것은 러브소나타를 통해 용서와 화해가 시작되었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점이다. 러브소나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본을 섬겼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현상이었다. 긴 겨울을 인내한 끝에 피워낼 일본선교의 찬란한 봄을, 활짝 피어날 꽃들을 기대해 본다.

두근두근 마카롱 2018

크리스천 청년들의 여러 고민들, 그 해답을 찾아가는 좌충우돌 신앙 공감 이야기
더 현실적이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왔다



EP#1

단톡방 무반응에 대처하는 자세 (3월 15일 업로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공동체 리더, 가희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공감 댓글

- 길 00 : 이 새벽에 우리 교사들이 생각나네요.. 힘내서 열심히 맡겨진 사역 감당합시다!
- 권 00 : 우린줄 ㅋㅋㅋㅋ 씹씹땀땀.. 파이팅하자!
- 백 00 : 우리 리더님한테 잘해줘야겠다!!
- 장 00 : 공감합니다. 젊은 시절에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에 미안한 맘뿐이네요...
- 김 00 : 리더는 외로운 자리! 그래도 난 행복한 리더



EP#2

늦은 밤, 허전함이 찾아오는 순간 (3월 29일 업로드)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픈 청년 재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공허한 생각들이 드는데... 이 감정은 뭘까?



EP#3

여사친의 씬남이 신경 쓰이는 이유 (4월 5일 업로드)
은남과 소꿉친구인 가희. 은남은 언제부터인가 가희 옆에 있는 재현이 신경쓰이기 시작한다. 영원한 친구로 남을 줄 알았던 가희에 대한 마음이 복잡해진다.



〈두근두근 마카롱〉 현실 공감 캐릭터 현범 역, 배우 임재민

미니콤 〈두근두근 마카롱 2018〉(이하 마카롱)이 2018년 첫 시즌을 공개했다. 지난해 시즌4까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마카롱〉은 TV에서도 방영되어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첫 회부터 맞춤형 입을 입은 듯 실감나게 캐릭터를 표현한 배우 임재민은 〈마카롱〉 인기의 일등공신 중 한 명이다. 30대 신혼부부 에피소드의 현범 역을 맡아 ‘남편 노답!’, ‘눈치 제로’ 등의 반응을 들으며, 캐릭터를 친근감 있게 표현했다. 평소 재치 있는 입담으로 유머를 즐기는 그의 성격이 현범 역의 캐릭터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임재민은 웹 드라마 〈LIFE〉(2015) 출연을 계기로 〈마카롱〉에 캐스팅됐다. 〈7번방의 선물〉, 〈황해〉 등 그간 다수의 한국영화에도 얼굴을 비쳤지만, 〈LIFE〉에서 보여준 유연한 연기와 개성 있는 모습이 더욱 제작진의 눈에 들어와 별도의 오디션 없이 첫 촬영을 시작하게 됐다. 그는 〈마카롱〉을 통해서 장광, 성병숙 등 베테랑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전했다. 준비해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선배 배우들이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또한, “짧은 영상인 만큼 임팩트를 주려고 노력한다”고 전했다. 로또 당첨을 소재로 한 ‘12화 로켓리스트’ 편은 더욱 심혈을 기울인 에피소드다. 촬영 전, 그는 제작진에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장면마다 이를 반영해 생동감

과 웃음을 더했다. 임재민에게 〈마카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연기의 진정성 등을 고민하다가 때마침 예전에 출석하던 교회가 집 가까이로 이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나가게 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카롱〉 출연 제의를 받았다. 그때 문득 언젠가 시트콤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떠올랐다. 1년여 남짓 이 작품을 하며 그는 줄곧 자신이 미칠 영향력을 생각하게 됐다. 작품 속에서나 화면 밖 생활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볼 많은 시청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되고 싶었다. 덕분에 그는 “이 작품과 함께 하는 동안 생활에 좋은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올 한해는 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그가 추천하는 〈두근두근 마카롱 2018〉의 다음 이야기들이 더욱 기대된다.





또 다른 세상

가 가

< > < 가

> <

>



송 선교사 부부가 태국에 본격적으로 정착한 것은 2007년이다. 1999년 1년간 참여했던 태국 단기선교가 계기가 돼 태국을 품게 됐다. 그는 태국교회의 협력선교사로 사역을 시작했다. 지역교회의 청소년들을 살피고, 중·고등학생 한글교실, 6개 대학교에 셀 모임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지역교회의 부흥과 차세대의 신앙 성장을 도왔다.

지금은 빼암프라쿰(은혜 충만)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아내 석영주 선교사와 초등학교 6학년, 2학년 두 딸, 그리고 다섯 살 막내아들도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헌당예배를 드린 빼암프라쿰교회는 사오하이 군에 처음 생긴 교회이자 하나밖에 없는 교회다. 또한 '은혜 충만'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은혜로 세워진 값진 열매다. 2009년 한 달에 한 번씩 성도들의 가정을 돌며 예배를 드리던 시절, 송 선교사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 부지와 목회자 청빙을 놓고 기도했다. 이후 부지 매입을 위해 은행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은행 이자가 아깝다며 한 성도가 무이자로 건축비를 내놓아 보다 순조롭게 교회 부지를 매입했다.

다음 단계인 건축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며 쉽게 소망의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결국 교회가 세워졌다. 또한 처음부터 함께 기도했던 그가 교



회 담임목회자로 부임하게 됐다.

그는 현재 태국교회에 LED 십자가를 설치하고, 각 교회들의 예배 음향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마이크 선이 끊어져도 고칠 줄 몰라 테이프를 감아 사용하는 곳들을 보면서 은사를 살려 섬기고 있다. 노후화된 음향 장비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앞서 뛰며 기도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를 품어왔던 만큼 유치원을 세워 태국교회를 위한 꿈나무들을 기르고 또 그들을 가르칠 교사들을 세우게 되길 소망하고 있다.

송 선교사는 "모든 것이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었고 기적이었다"고 회고했다. 교회가 한국교회의 헌금과 태국 전역에서 조금씩 보내오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뜻밖의 후원으로 사역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면 선교사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지에 잘 전달되도록 더욱 깨끗한 주님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 했다.

누군가 함께해주는 사명

태국 송진호, 석영주 선교사

"CGNTV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선교사들을 언급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 나의 사명을 기억해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며, 또한 한 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선교사를 기억해주는 방송,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태국 송진호, 석영주 선교사 부부는 2009년 CGNTV가 태국에 처음 터를 잡을 즈음, 속한 선교단체를 통해 CGNTV를 알게 됐다. 한국 예배가 그리웠던 부부에게 CGNTV는 선물이었다. 부부의 첫 사역지인 나콘파툼은 인근에 한국 선교사들이나 선교 단체가 없어 CGNTV로 드리는 모국어 예배는 더없이 반갑고 귀했다.

CGNTV 예배 시간이 되면 송 선교사의 가족은 모두 옷을 갖춰 입고 앉아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TV만 틀면 접할 수 있는 말씀은 지금도 가장 든든한 영적공급처다.



CGNTV 해외뉴스



미주 CGNTV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미주 CGNTV가 LA 내 사무실을 이전하고 지난 2월 14일 감사예배를 드렸다. 중계촬영이 가능한 80평 규모의 스튜디오를 보유하게 된 새 보금자리에서는 동역기관들인 두란노서원, 두란노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KIBI 아메리카, 미주온누리비전교회(OMA)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함께 예배하며 새 출발을 축복했다. 권혁빈 목사(OMA본부장, 엘바인 온누리교회 담당)가 '거룩한 곳에서'(수5:13-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CGNTV 이용경 대표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일본 CGNTV 가스펠나이트 벅스트

'가스펠나이트 벅스트' 집회가 지난 1월 30일 도쿄 나카노에서 열렸다. 러브소나타 10주년 도쿄대회 후속 행사로 기획된 이번 집회는 총 1천 2백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지난해의 열기를 이어갔다. 또한 일본 CGNTV의 라이브 방송으로, 2천여 명이 온라인에서도 집회에 함께했다. 온누리교회 정재훈 목사가 '자신을 바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참석자 중 126명이 교회 헌신을, 98명이 목회자의 길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랍 CGNTV 중동·아프리카 선교대회

중동·아프리카지역 선교대회가 지난 2월 아부다비에서 진행됐다. 두란노해외선교회와 기획하고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아랍 CGNTV가 협력한 이번 대회는 중동, 아프리카 11개국 4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해 선교 네트워크와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TV와 모바일 등을 통해 중동 지역 무슬림들의 개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선교사들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을 위한 미디어 전문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인도네시아 CGNTV 워십 & 미디어 콘퍼런스 2018

'워십 & 미디어 콘퍼런스 2018'이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지난 2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사흘간 개최됐다. 현지 지역자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예배와 미디어에 대한 주제 강의, 예배팀 밴드를 위한 각 파트별 선택 강의, 교회 미디어에 대한 강의 등 참석자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자카르타에 이어 마련된 이번 콘퍼런스는 반둥에 있는 현지교회, 한인교회, 한인선교사, 두란노해외선교회, 온누리교회, CGNTV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만들어낸 융합 선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대만 CGNTV 특별 좌담회 <새 시대 복음의 통로>

대만 CGNTV는 미디어선교를 주제로 한 개국 10주년 특별 좌담회 <새 시대 복음의 통로(新世代福音的管道)>를 제작했다. 목회자, 교회 영상 담당자, 기독교 유튜브 운영자들이 한데 모여 미디어 시대에 따른 교회와 성도들의 선교 방안을 이야기했다. 송무창 목사(IM행동교회)는 "SNS는 복음의 새로운 타점 마당"이라며 젊은 세대를 위한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전했다. 인기 유튜브 운영자 윌리엄과 페이코는 "영상 창작의 가장 중요한 점은 창작자의 영성"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CGNTV는 향후 특별 좌담회 <매체와 차세대>, 다큐멘터리 <대만과 선교>(가제) 등을 연이어 제작해 대만선교 해법을 찾아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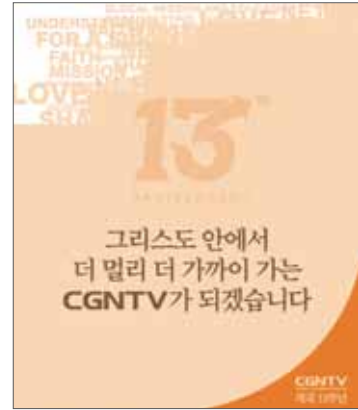


태국 CGNTV CCT와 MOU 체결

태국 CGNTV는 지난 3월 20일 태국 최대교단인 CCT(태국기독교총회)와의 새로운 MOU를 맺었다. CCT는 태국 내 20개 노회, 1,840개 교회(전도처포함), 약 20만여 교인, 6개의 신학교육기관, 2개의 대학교, 8개의 병원, 30개 학교, 32개의 외국 선교단체에 116명의 선교사 등과 협력하고 있는 태국 최대교단이다. 2015년 첫 MOU 체결을 통해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온 태국 CGNTV와 CCT 교단은 이번 새로운 협약을 통해 미디어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GNTV 국내뉴스



개국 13주년 선교헌신예배

CGNTV가 3월 30일 온누리교회 경천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멀리 더 가까이'를 주제로 개국 13주년 선교헌신예배를 드렸다. 이번 예배에는 올해 선발된 선교헌신자 2명이 간증을 나누며 은혜를 더했다. 태국지사로 파송될 영상제작팀 고요한 부팀장은 "내가 정말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앞으로 있을 훈련과정을 잘 소화하고 미디어선교사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일본지사로 파송될 송출팀 박재원 사원 또한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선교사가 되어 예수님의 은혜를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160여 명의 전 직원이 방송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지는 선언의 시간을 갖고 개국 13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2018 CGNTV 운영위원회

2018년 첫 CGNTV 운영위원회가 지난 3월 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열렸다. CGNTV 이용경 대표의 업무보고와 이재훈 온누리교회 담임목사의 메시지, 정상건 운영위원장의 2018년 운영위 계획 발표 등이 있었다. 운영위는 이날, 올 한해 CGNTV 시청 홍보에 보다 주력하고, 주변에 CGNTV 정기후원을 소개해 '5만 후원자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CCT(태국기독교총회) 총무단 방문

태국교회 지도자들인 CCT(태국기독교총회)의 총무단, 수라퐁 총무, 빠리야 국내 부총무, 뿌라엣 국제 부총무 등이 지난 2월 23일 CGNTV 본사를 방문했다. 태국 선교사 강대흥(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 선교사) 목사, CGNTV 태국지사 이충환 국장이 동행했다. 수라퐁 총무는 "태국은 복음화율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이지만 지난해 태국 CGNTV IPTV 개국으로 태국 복음화에 소망을 품게 됐다"고 전했다.

2018 신입사원 수련회 '삼공편치'

CGNTV 신입사원 수련회 '삼공편치'가 지난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광주 진새골 사랑의 집에서 진행됐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삼공편치'는 입사 1년 이내의 사원들을 대상으로 CGNTV의 핵심가치인 '공유, 공감, 공생'의 뜻을 다지는 자리로, 올해는 신입사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CGNTV 이용경 대표와의 대화, 자기소개, 공동체 훈련, CGNTV 히스토리와 비전 공유의 시간을 가졌고, 집회 및 애찬식 등을 통해 사명을 되새겼다. 참석자들은 "부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CGNTV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말씀강해

CGNTV 말씀강해가 2018년 상반기 더욱 풍성해진다. 타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건강하고 복음적인 9명의 설교자들의 말씀이 오는 4월부터 새롭게 편성된다. 국내 4명, 김형익 목사(뽕살롬교회),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임채영 목사(서부성결교회),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미주 지역 5명,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최경욱 목사(LA또감사교회) 등 다양한 목회자의 말씀으로 시청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간다.



CGNTV 용산구청장 표창 및 다큐영화<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ICFF 결선 진출

CGNTV는 작년 6월 '서빙고 벽화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 섬김과 2018년 한강중학교 '미디어 워크숍' 등 지속적인 지역섬김의 공로를 인정받아 오는 4월 10일 용산구청장 표창을 수상한다. 이어 CGNTV가 2017년 제작한 서서평 선교사의 '성공이 아닌 섬김'의 일생을 다룬 다큐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가 오는 5월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국제기독교영화제(ICFF)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경쟁작 117여 편 중 10편 안에 들며 결선에 진출했다.



선교지를 돕는 은혜까지



여성운영위원회 바자회 개최

CGNTV 여성운영위원회가 지난 1월 18~19일 이틀간 CGNTV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산지'에서 진행된 이번 바자회는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여성운영위원들은 행사 전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장소를 제공한 '산지'의 직원들은 당일 진행을 도우며 협력했다. 바자회는 스타프 예배로 시작해 문화예배, 후원 약정 등이 함께 진행됐다. 여성운영위는 "CGNTV에 작게나마 일조하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여성운영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익금은 전액 CGNTV 후원금으로 기부됐다.



대전 온누리교회 차세대, 'CGNTV드림통' 후원

지난해 연말 대전 온누리교회 차세대 예배에서 해외 선교사들에게 CGNTV 안테나를 달아드리는 드림통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선교사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55개의 드림통이 모아졌다. 박태영 대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는 "차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사님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돕기 위해 이번 후원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선교사님께 드리는 선물'을 콘셉트로 한 이번 캠페인은 성탄주간에 진행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



은혜짜장선교단의 따뜻한 선물

'은혜짜장선교단' 김중교 전도사가 지난 3월 22일 CGNTV를 방문해 직접 조리한 짜장면을 전 직원 점심식사로 제공했다. 실행위원장 배중수 장로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식사는 짜장면 한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은혜짜장선교단'이 CGNTV의 미디어선교 사역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CGNTV 직원은 "주변에 식당이 드문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식사 대접을 해주셔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다"며 "귀한 섬김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김미현 후원자

김미현 후원자에게 CGNTV는 사랑하는 교회다. 새벽예배 치소이고, <생명의 삶> 큐티를 도와주는 하루의 인도자다.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40일 새벽기도도 CGNTV를 통해 동참했다. 그녀에게 CGNTV는 선물처럼 찾아온 방송이었다.

그녀는 3년 전 해외 선교사인 지인을 통해 CGNTV를 처음 소개받았다. 이사하면서 교회로 새벽기도 나가기가 어려워졌을 때였다. CGNTV가 해외에서, 그것도 선교사인 지인이 먼저 아는 방송이라는 점이 무척 새로웠다.

실제로 접해보니 CGNTV는 예배, 말씀 등 모든 프로그램이 말씀 중심인 점이 좋았다. 무엇보다도 TV를 틀면 언제든지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도와줬다. 받은 은혜가 커질수록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볼 수 있도록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선교지 안테나 지원 사역에 늘 동참하고 싶습니다. 전파를 통해서하시는 하나님의 일 같았습니다. 순수 복음을 전하는 CGNTV가 늘 초심을 지키며 선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이지만 도우며 기도하겠습니다."

김미현 후원자는 방송에 대한 고마움과 동역의 마음을 담아 후원으로 늘 품어오던 뜻을 표현했다. 후원을 결단하자 가정에도 좋은 일이 생겨 더욱 감사했다는 그녀.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 또 한 번 선교지 한 영혼에게 흐르게 됐다.

CGNTV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 한 영혼을 위한 일들로 오늘도 바쁜, CGNTV의 새로운 얼굴들을 소개한다.

중국인으로서 중화권의 영혼들을 위해

귀한 사역 알리는 일 감사

곧 올바른 것은 아니었다. 광고문의까지 받으며 주변의 다양한 반응을 경험해봤지만, 그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며 주변에 말씀 콘텐츠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씀을 다루는 1인 미디어의 힘은 미약했다. 그에게 CGNTV는 그즈음 위로와 소망처럼 만나게 된 곳이었다.

지난 2월 1일 입사한 이후, 그가 바라본 CGNTV는 그동안 꿈꾸던 곳이었다. 리더가 직원들을 섬기고 기도와 예배로 하루 업무를 시작하는 곳. 또 신입사원 수련회 '삼공편치'에서도 새로운 힘을 얻었다. 회사의 역사와 사명을 배우고, 한 배를 탄 이들의 기도제목 등을 들으며 그는 지난 외로운 바람들에 위로를 받았다.

“지난 제 삶의 과정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같습니다. 또한 지금이 앞날을 위한 예비하심일 테고요. 제 안에 그리스도도,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어 더욱 감사합니다.”

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부각되는 시대. 새로운 출발선에서 있는 추정현 사원은 미디어의 힘을 여러 측면에서 맛봤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에 CGNTV와 함께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고 싶다.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르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CGNTV 브랜드 커뮤니케이션팀 추정현 사원은 이를 고민하던 중 올 초 CGNTV에 입사했다. CGNTV 사역을 알리는 일을 맡아 현재 누구보다 기대에 차 있다.

언론인을 꿈꾸며 다년간 블로그를 운영하고,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던 추정현 사원은 미디어의 힘을 몸소 느껴왔다. 하지만 주목받는 콘텐츠가

한국 가수, 한국 드라마가 좋아 한국에 왔던 한 중국인 자매가 올 초 CGNTV의 한 식구가 됐다. 해외채널기획팀 중문파트 기획자 고희 사원이다. 더욱이 그녀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전혀 믿음도 없던 인물이었다. 이는 그녀의 가족이나 주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번역, 검수, 자막, 촬영 등의 일정을 관리하며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고희 사원은 중국에서 사범대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의 중국어 강사 채용 공고를 보고 10년 전 한국에 왔다. 처음에는 1년 체류하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한국의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 지내게 됐다. 그 와중에 한국 친구의 제안으로 처음 교회에 나갔다. 처음엔 중국인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게 목적이었지만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믿음이 자랐고, 지금은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CGNTV는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했다. 중국어 강사 생활에 충분히 익숙한 상태였고, 방송이라는 낯선 일을 시작해야 하는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조심스레 한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중국문화를 잘 이해하고, 중국어, 한국어 동시에 능숙한 인물이었다.

이제 입사 세 달을 채우고 있지만, 그녀에게 CGNTV는 또 하나의 교회 같았다. 회사에 오면 마음이 편했고, 동료들도 친절했다. 특히 삼공편치 수련회에서 경험한 공동체 활동은 특별했다. 적응하는 동안 그녀의 동료들은 방송에 대한 이해와 부족한 문서 작업들을 도와주었다.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아직은 많은 것들이 낯설지만, 그녀는 부모님을 포함해 중화권의 많은 영혼을 위한 이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녀의 기도제목이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팀 추정현 사원



해외채널기획팀 중문파트 고희 사원

CGNTV
프로그램
편성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5:00 하용조 목사의 순종(영어자막) 05:4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6:2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 10:3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1:10 KNOCK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6:4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7:20 하용조 목사의 순종(영어자막) 08:00 CGN 투데이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08:5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10:20 [말씀] 김창근 목사(무학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말씀] 이재철 목사(100주년기념교회) 06:4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07:20 [말씀]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08:00 CGN 투데이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08:5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0:2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한국순례기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06:4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07:20 [말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08:00 CGN 투데이 08:20 나침반 바이블 10:2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11:00 나침반 플러스 11:3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하용조 목사의 순종(영어자막) 06:4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07: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8:00 CGN 투데이 08:20 나침반 바이블 10:2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06:4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7:2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08:00 CGN 투데이 08:20 나침반 플러스 08:5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09:30 CGN 비전특강 10:2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새벽기도회 06:0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06:4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06:4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08:20 나침반 바이블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09:50 나침반 플러스 10:2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1:0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3:20 어린이예배 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6:00 나침반 바이블 16:3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2: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3:10 [말씀] 이재철 목사(100주년기념교회) 13:5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4:50 [말씀] 박성민 목사(한국대학생교회)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말씀]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17:30 예수님이 좋아요 17:5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12:30 [말씀]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13:10 [말씀] 박성근 목사(LA한인침례교회) 13:5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14:50 [말씀] 권혁빈 목사(얼바인온누리교회)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17:30 예수님이 좋아요 17:5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2: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13:10 [말씀] 임채영 목사(서부성결교회) 13:5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4:5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17:30 예수님이 좋아요 17:5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2: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13:1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4:5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17:3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8:30 CGN 투데이	12:3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뉴욕IN2) 13:5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6:20 나침반 바이블 16:5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17:30 나는야 주의 어린이 18:30 CGN 투데이	12:3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13:1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3:50 [말씀]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14:50 KNOCK 15:00 나침반 바이블 16: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17:2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18:20 신앙생활 연구소 유턴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한국순례기 21:4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23:00 나침반 바이블 23:3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9:3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20:10 기독교 세계관 아카데미 21:00 [말씀] 김형익 목사(번살롬교회)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22:4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23:20 [말씀] 김지철 목사(소망교회) 23:50 [컨퍼런스] 복음과 문화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19: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회) 20:10 기독교청년을 위한 미로찾기 컨퍼런스 21:00 [말씀] 임채영 목사(서부성결교회)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2:4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23:2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23:50 카일 아이들먼의 제자입니다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9:3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20:10 홈 에듀케이션 컨퍼런스 21:00 [말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22:40 한국순례기 23:2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23:50 데이비드 플렛의 래디컬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김형익 목사(번살롬교회) 19: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20:10 종교개혁 500주년 기획 <오직 믿음, 오직 기도> 21:00 [말씀] 권혁빈 목사(얼바인온누리교회)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신앙생활연구소 유턴 23:20 [말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0:20 생명의 삶	18:5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19:3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20:10 이상익 교수의 꽃보다 아름다운 목회상담 이야기 21: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22: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3:2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23:50 칩 잉그램의 소망을 선택하라 00:20 생명의 삶	18:20 하용조 목사의 순종(영어자막) 19:00 이상익 교수의 꽃보다 아름다운 목회상담 이야기 20:0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20: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1:20 한국순례기 22:5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23:50 크레이그 그로셀의 언어의 능력 00:20 생명의 삶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사역으로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순종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릅니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에 온전히 삶의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신앙의 기초로 생각되는 이 고백은 사실 신앙의 절정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체험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CGNTV는 방송을 통한 선교에 비전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이 그 뜻을 이뤄갑니다. 이 사역에 온전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전해지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무엇이든 조직화, 제도화되고, 규모가 커질 땐 그것이 왕국이 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을 못 박는 일, 우리 기관의 이름, 영역, 활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사역이 되도록 하는 일, 그것이 우리 믿음과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 비전을 두는 것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로 올 한해 함께 이 비전을 이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누리선교재단 이사장 이재훈 목사
2018 시무예배 중에서

후원안내

CGNTV는 오직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복음방송'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후원은 힘있는 복음 방송의 밑거름이 돼 선교지 한 영혼에게 새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 CGNTV 방송사역 후원방법 안내

* 후원신청방법

1. 전화신청 02-796-2243
2. 인터넷 신청 www.cgntv.net 우측상단 후원하기 클릭
3. 모바일 신청 m.cgntv.net 후원하기 클릭

* 후원방식

1. 정기후원신청
 - 통장자동이체 • 신용카드 정기후원
2. 일시후원신청
 - 계좌이체 or 무통장입금 / 신용카드 / 휴대폰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ARS 후원 060-700-1660 (한통화 5천원)

* 후원계좌

-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농협 301-0072-3639-01

* 해외지사 후원

- KEB하나은행 573-910007-48104
-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CGNTV 실행위원회 배종수(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종건, 김종성, 이광형, 이인용, 장규환, 정운섭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상훈, 강신익, 고미애, 고현준, 구재영, 국정숙, 권득한, 권익현, 김관근, 김관식, 김명세, 김명철, 김석인, 김선래, 김성균, 김성목, 김성진, 김수영, 김순영, 김신원, 김영길, 김오성, 김용성, 김원균, 김 인, 김인겸, 김장렬, 김정훈, 김종수, 김종호,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나영욱, 남상욱, 문성준, 문애란, 문영기, 박상송, 박성호, 박영한, 박은영, 박은정, 박이철, 박지수, 박찬구, 박현규, 방찬중, 서명수, 서성렬, 서정호, 서춘희, 선우석, 성필호, 손제열, 손태용, 손한기, 송영태, 신수은, 신철우, 심광명, 심상탈, 심희돈, 안대륜,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유병진, 유영선, 유의준, 유이상, 유주희, 윤석우, 윤영각, 윤원식, 윤유인, 윤진혁, 이경석, 이경호, 이관수, 이국주, 이남식, 이동엽, 이범음, 이병하, 이서정, 이석일, 이영희, 이용만, 이은경, 이일표, 이일형, 이창환, 이춘희, 이학일, 이희연, 임진욱, 임창빈, 장 광, 장순애, 장정심, 정상기, 정재민, 정진호, 조성현, 조영준, 지성한, 채수삼, 최남용, 최도성, 최동환, 최유강, 최정수, 최훈학, 하성기, 한상규, 한상준, 한창격, 한형식, 함일성, 홍혜실, 황광석, 황상윤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위성TV

- ▶ 국내 설치비용 : 30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2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케이블TV

- ▶ ch.322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h.304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h.702번 (프리미엄형 상품)

IPTV

- ▶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ch.302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ch.183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스마트폰

1. 어플리케이션 CGNTV Live
 - 이용방법: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2. 모바일웹 m.cgntv.net
 - 이용방법: 인터넷 주소 창에서 m.cgntv.net 로 접속
3. 팟캐스트
 - 이용방법: 어플 설치 (아이폰: Podcast // 안드로이드폰: 캔디팟캐스트)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 영상 다운로드

인터넷 서비스

CGNTV홈페이지에서는 고화질 Live 방송과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CGNTV인터넷 (www.cgntv.net)
2. CGNTV유튜브채널 (Youtube.com/Globalcgn)

SNS

CGNTV의 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일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CGNTV Korea : www.facebook.com/cgntv
- KNOCK(노크) : www.facebook.com/cgntv.knock